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 특성과 의의*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of China's Rural Tourism

Kyong-Cheol Park

Rural and Agriculture Research Center, Chungnam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not only the time-base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process of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China, but also explains the significances of rural tourism in China by economic-political significance and social-cultural significanc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investigated throughout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China can be divided by three stages: the first stage(1980-1990), the second stage(1990-2000), the third stage (2000 -). Second, the rural tourism in China mainly has been developed around the metropolitan city such as Beijing, Chengdu. But, they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process of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Third, rural tourism in China has been used in solving *san-nong*(三農) problems which are the most urgent issues in contemporary China and reducing the gaps of living standar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Forth, rural tourism in China has contributed in satisfying the needs of travel and leisure caused by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of people due to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Last, it i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e prepared to guarantee the benefits of farmers.

Key words: rural tourism, farm tourism, leisure agriculture tourism, *san-nong* problem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대국인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업이었다. 서구와 일제의 침략 그리고 국민당과의 오랜 싸움을 끝내고 신중국을 건립했지만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추진, 극단적인 평등사회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합작사와 인민공사의 추진, 과도한 목표와 망상으로 추진된 대약진운동과 그로인한 대기아의 참사, 그리고 극도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인은 배불리 먹는 문제의 해결이 최대 현안이 되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의 지난한 배고픔의 고통과 고난 극복의 열망은 이후 개혁·개방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혁명의 시기 극도로 경계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도시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도시공동체인 '단위(單位)'체제가 해체되고, 농촌에서는 이상적인 중국식 사회주의의 모델이었던 인민공사(人民公社)가 해체되어 농지가 농민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었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체(村단위

주요어: 향촌관광, 농가락, 휴양농업, 삼농문제

* 이 논문은 2015년도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과제번호 기본과제-15GI003)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 교신저자(박경철) 전화: 041-840-1206, email: kcpark@cni.re.kr

의 集體)에 있지만 사용권은 농민에 귀속되어 농민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였다. 그 결과 농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어느 정도 먹는 문제(溫飽)를 해결하자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중국이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먹는 문제를 넘어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여유도 즐기는 사회(샤오캉사회: 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개혁·개방의 결실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중국인들은 이제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통 의·식·주라고 말하지만 중국인들은 의·식·주·행(衣·食·住·行)이라고 한다. 여기서 행은 간다는 뜻의 행(行)으로 여행과 관광을 뜻한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여행과 관광을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기본조건으로 여겨왔다. 광활한 중국의 대지와 지역마다 다른 자연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누적되면서 남겨진 문화유산과 다양한 음식문화는 중화민족의 자부심이자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여행과 관광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21세기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여행과 관광붐은 이처럼 중국인들 몸속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행(行)에 대한 갈망들이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폭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들어 향촌관광¹⁾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Wang et al., 2013) 2013년 한 해 중국 향촌관광 방문객은 3억 명에 달해 전체 여행객의 30%를 차지했다. 또한 향촌관광의 기반시설도 확대돼 전국 농업관광시범지구는 전체 31개 성(省)급 지역에 359개가 편재해 있고, 향촌관광을 운영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70만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향촌관광으로 인한 영업수익은 2,800억여 위안으로 전체 3,000만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王燦 2015) 이처럼 중국의 향촌관광은 단시간 내에 빠르게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이고 향촌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5천 년의 문화적 전통은 대부분 향촌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베이징과 시안 등 고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도시문화도 꽃을 피웠지만 페이샤오퉁(費孝通)이 일찍이 실파했듯이 중국문화의 원형은 향촌에 있다는 명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 문화의 원형인 향촌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저렴한 비용으로 풍족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시소비자들이 소득이 향상되었을지라도 아직은 풍족한 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를 갖지는 못하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의 비싼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도시 근교 농촌에서 자연의 쾌적함과 동시에 풍족한 향토음식도 즐길 수 있어 향촌관광을 선호한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대도시 주변으로 향촌관광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공급자측면에서 보면, 중국정부가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향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국 성립 이후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시화,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연해안도시 중심으로 산업화를 선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극도로 심화되고 그로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팽배해지자 후진타오 정권은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을 제기하며 농촌발전을 도모했고, 뒤이어 시진핑(習進平) 정권에서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신행도시화사업을 통해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농촌의 생활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도 있지만 농촌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해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역사·문화적 자원이 좋은 농촌마을들은 개발을 통해 향촌관광지로 변모해 도시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향촌관광은 여러 가지 발전적 특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향촌관광이 시간적, 지역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향촌관광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중국 향촌연구 경향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향촌관광이 서서히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향촌관광에 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 가운데에는 먼저 주목할 사항은 향촌관광의 토대

1) 중국에서는 향촌관광을 향촌여유(鄉村旅遊)로 표기된다.

이자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향촌성’과 ‘향촌문화’에 관한 규명한 연구이다.

何景明 & 李立華(2002)는 향촌관광을 논하기 앞서 향촌관광을 규정하는 ‘향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향촌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경우 향촌관광의 개념 또한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향촌성’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지역은 넓으나 인구밀도가 작고, 인구 규모가 적을 것. 둘째, 토지이용 유형이 농업용지와 임업용지 등 자연용지 위주이며 건축물 점유지 면적이 적을 것. 즉, 향촌형의 자연경관과 계절성이 강한 농업과 임업 위주의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곳. 셋째,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닐 것. 즉, 사회활동의 대부분이 면대면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회생활이 가정 중심으로 가정관념, 혈연관념이 강하고, 풍속과 도덕관념이 강하면서도 사회변화와 생활리듬이 비교적 느려 사람들이 보수적인 심리가 강한 곳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일부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여행, 도시형 휴양지관광, 첨단과학기술농업단지관광 등은 향촌관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張麗 & 張勇(2007)은 “향촌문화와 향촌관광 개발”연구에서 향촌관광의 본질은 향촌문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그들은 향촌관광을 개발하는 데 있어 농익은 향촌문화의 의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향촌문화에는 자연성, 생산성, 그리고 취약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盧小麗 等(2011)도 20년간의 국내외 향촌관광에 관한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 현재 중국 향촌관광에서 필요한 것은 향촌관광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향촌성을 재고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중국 향촌연구의 두 번째 특징은 향촌관광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龍茂興 & 張昕清(2006)은 중국 향촌관광 발전과정에서의 문제를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는 향촌관광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흔히 관광하면 도시적인 편리함과 화려함에 매몰되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무시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향촌성”은 여전히 향촌관광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다. 둘째는 통일적인 계획의 부족이다. 향촌관광을 지역 단위 발전 계획에 포함해 전체적인 계획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초시설의 부족이다. 여전히 많은 향촌관광 지구에는 도로, 정류장, 화장실, 객실, 음식점 등의 시설이 부족하다. 넷째는 자금과 전문화된 인력의 부족이다. 여전히 향촌관광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고 전문적

관리인원도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상품과 이익의 문제이다. 여전히 향촌관광의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張文, 安豐艷 & 李娜(2006)는 중국의 사회와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져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향촌생활과 향촌민속 및 전원풍광을 즐기는 향촌관광도 발전했다고 보고 이러한 향촌관광의 발전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효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향촌관광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郭煥成 & 韓非(2010)는 중국 향촌관광의 시작 배경과 개념적 특징을 바탕으로 중국 향촌관광 발전에 대해 개괄하고 향촌관광의 발전 현황과 주요 모델을 분석해 향후 지속가능한 향촌관광의 방향을 제시했다.

향촌연구의 세 번째 특징은 특정한 지역사례를 통해 그 지역 향촌관광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발전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郭煥成 等(2008)은 “베이징 휴양농업과 향촌관광 발전 연구”에서 베이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관광발전의 환경이 양호해 가장 일찍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이 발전한 도시라고 했다. 또한 베이징은 자체적으로 향촌관광 발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베이징 외곽을 중심으로 향촌관광을 적극 육성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馬勇 等(2007)은 경제적 수요, 사회문제, 그리고 관광업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향촌관광 발전의 현실 배경을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특색의 향촌관광의 발전 과정과 향촌관광의 발전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시의 향촌관광에 대한 조사를 통해 크게 촌락식 향촌관광 클러스터형 발전 모델, 원림(園林)식 특색 농산업형 발전 모델, 정원식 휴양휴가풍경구형 발전 모델, 고가(古街)식 민속관광여행 소성진(小城鎮, 소도시)형 발전 모델 등 4가지 향촌관광 발전 모델을 도출했다.

또한, 朱華(2006)는 향촌관광의 바람직한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청두시 산성(三聖)향 홍사(紅砂)촌을 사례로 향촌관광 개발과 진행과정에서 농가, 촌민위원회, 향토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이익관계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향촌관광을 좀 더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익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周建明 等(2011)은 향촌관광이 농가에서 숙박하고 향토음식을 먹는 전통

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변화되는 시장수요에 맞춰 특색화, 규범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촌관광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王瑩 & 許曉堯(2015)의 최근 연구에서는 항저우(杭州)시 농촌관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서 정부의 지지가 여전히 향촌관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하지만 향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직능 개편과 관광행정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능력 제고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향촌관광은 시장의 수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어 연구 주제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향촌관광과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와의 연계성이다. 주지하다시피 향촌관광은 시진핑 정권 이후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신형도시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을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여건으로 조성해 도농 간 삶의 질적 차이를 줄이는 한편 양적 경제성장도 이룩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신형도시화는 향촌관광 발전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도시화의 기회를 활용해 향촌관광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黃震方 등(2015)은 신형도시화는 향촌관광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향촌관광을 적극 개발하고 향촌지역의 도시화를 과학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 신형도시화와 향촌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적 요구이자 중요한 과학적 명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王燦(2015)은 신형도시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향촌관광은 자칫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 위주의 '반생태(反生態)'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향촌관광은 환경보호 기술 등을 바탕으로 녹색향촌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향촌관광 조직체 내부 운영기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王昌海(2015)는 전국 7개 성, 30개 향촌관광합작사의 302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효율, 공평, 신뢰, 그리고 만족도 등 4개 요인 간 내재작용 기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합작사의 효율성, 공평성은 합작사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신뢰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체의 운영 방식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방법

2.1. 용어의 정의

농촌관광 혹은 향촌관광은 원래 19세기 초 산업화시기 유럽에서 시작한 여행의 형식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각종 오염과 혼잡을 피해 농촌을 찾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서구 유럽에서 발달한 농촌관광은 일본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중국에서는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농촌관광 혹은 향촌관광은 범위가 매우 넓고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용어 또한 다양하다.²⁾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에서도 이를 규정하는 용어도 다양하고 모호하다.(Wang et al., 2013)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관광(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으로 개념을 전환하고 있듯이 중국에서의 농촌관광의 개념도 향촌관광(鄉村旅遊)³⁾으로 수렴되고 있다.(何景明 & 李立華, 2002; 龍茂興 & 張河清, 2006; 戴斌, 周曉歌, & 梁壯平, 2006; 馬勇 등, 2007; 郭煥成 & 韓非, 2010; 盧小麗, 2014; 黃震方 등, 2015)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관광에 대한 단일한 개념은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농촌관광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계의 모호성과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의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세 가지 개념(용어), 즉 향촌관광, 휴양농업, 농가락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2.1.1. 향촌관광(鄉村旅遊)

향촌관광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산되었다. 郭煥成 & 韓非(2010)는 오늘날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향촌관광(鄉村旅遊)⁵⁾은 농업을 기초이며, 관광이 목적이며, 서비스가 수단이며, 도시주민을 목표로 하는, 제1산업과

2) 농촌관광 또는 향촌관광과 관련한 서구의 용어로는 green tourism, farm tourism, rural tourism, agri(o)-tourism, village tourism, peripheral area tourism, eco-tourism 등 다양하다.

3) 중국어의 '旅遊'는 우리말로 '관광'과 '여행'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여행'에 더 가깝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행보다는 관광의 개념이 더 가깝기 때문에 '旅遊'를 '관광'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鄉村旅遊'를 '향촌관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향촌여행'이라고 번역할 경우 그 개념과 어감이 본래의 취치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4) 향촌관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촌관광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중국에서 농촌관광을 굳이 향촌관광으로 표현하는 것은 '향촌'이라는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성, 전통성, 민속성, 회귀성을 담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라 판단된다.

5)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농촌관광을 중국에서는 향촌관광으로 불리며 정확하게는 '鄉村旅遊'로 표기된다. 여기서 旅遊는 관광 혹은 여행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여행보다는 관광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鄉村旅遊를 향촌관광으로 쓰고자 한다.

제3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張麗 & 張勇(2007)은 향촌관광은 농촌지역사회를 활동장소로 삼고, 향촌의 전원풍광, 삼림경관, 농림생산경영활동, 향촌자연생태환경과 사회문화풍속을 유인물로 삼으며, 도시주민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농촌의 자연풍광을 느끼고 농사일을 체험하며, 풍토와 민속을 이해하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관광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내용이 광범위하다, 2)목표시장은 도시주민이다, 3)강한 참여성이 있다, 4)지역적으로 차이가 많다, 5)계절성이 강하다, 6)투자는 적어도 효과가 빠르고 이윤이 좋다(王云才, 郭煥成, & 徐輝林, 2006)고 했다.

戴斌, 周曉歌, & 梁壯平(2006)은 향촌관광에는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다고 했다. 먼저 협의의 정의는 관광객이 농촌공간과 환경을 의지하고 향촌의 독특한 자연풍광과 인문적 특색(생산형태, 생활방식, 민속풍습, 향촌문화 등)을 대상으로 해 관광, 레저, 오락 또는 구매를 하는 일종의 관광형식이며, 광의의 정의는 농촌주민의 외부 관광을 포함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향촌관광의 정의는 주로 협의의 향촌관광을 말한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는 향촌관광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촌성(rurality)'이 무엇인지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향촌성은 향촌관광을 마케팅하는 핵심이자 요소이기 때문이다.⁶⁾ 향촌성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듯 농업과 자연적인 요소가 강하고 인구밀도와 인구가 적지만 도시에 비해 전통성과 관습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인간관계가 친밀하고 계절적 요소가 강하고 생활리듬이 비교적 여유로운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何景明 & 李立華(2002)는 향촌관광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 즉, 향촌자연풍광관광, 농촌마을관광 또는 농장관광, 향촌민속관광과 민족풍속관광으로 나눴다. 따라서 여기에는 농촌마을과 농장을 기초로 하는 관광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진행되는 휴양관광, 보건관광, 과학기술보급관광, 생태관광, 전통문화, 민족문화관광 등을 포괄한다. 郭煥成 & 韓非(2010) 또한 중국 향촌관광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1)전원농업관광모델, 2)민속풍속관광모델, 3)농가락관광모델, 4)촌락향진관광모델, 5)휴양휴가관광모델, 6)과학보급 및 교육관광모델, 7)자연회귀관광모델 등이다.

2.1.2. 휴양농업(休閒農業)

휴양농업(또는 휴한농업)이란 농업관련 활동들, 즉 농작물 식재와 수확,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조리, 향음, 아름다운 농업경관 감상, 가축과 어울리기, 수렵 등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주로 도시민)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휴식을 가져다 주는 농업방식을 말한다. 보통 휴양농업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베이징시, 상하이 등 대도시 근교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휴양농업이 등장해 확대되었지만 현재는 휴양농업도 향촌관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2.1.3. 농가락(農家樂)

전통적인 풍습, 토속적인 음식, 그리고 소규모 숙박시설을 보유한 개별단위 농가에서 도시민이 잠시 머물며 체험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가락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 발달한 지역은 쓰촨성 청두(成都)시로 알려져 있다. 농가락 또한 여러 가지 발전 모델(Su, B., 2011)이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향촌관광의 하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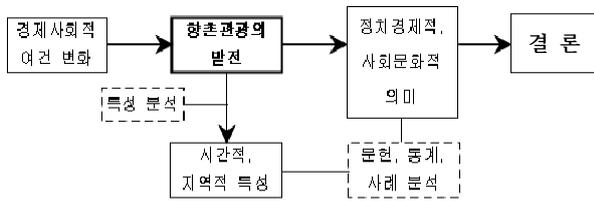
2.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문헌분석이다. 주로 2000년 이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자료를 통해 연구동향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통계분석이다. 향촌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인 향촌관광의 경향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사례 분석이다. 필자가 2007~2012년 중국체류 시기 방문했던 중국의 농촌마을과 이후 부정기적으로 방문한 향촌관광마을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들 향촌관광마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러기보다는 중국 향촌관광이 어떻게 변모해 나가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수준의 분석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⁶⁾ EU와 OECD는 농촌관광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농촌성(rurality)'은 농촌관광을 판촉하는 핵심이자 독특한 요소라고 했다. 그래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며 농촌세계에 만들어지는 특수한 모습이며 경영규모가 작고, 공간이 넓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는 관광 유형이라고 했다.(Arie Reichel, Oded Lowengart, Ady Milman, 2000; 何景明 & 李立華, 2002 재인용)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3.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 특성

3.1. 시간적 특성

중국에서의 향촌관광은 1980년대에 태동해서 199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이 1980년대를 거쳐 중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중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에서도 도시화로 인한 혼잡과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향촌 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⁷⁾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향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1998년, 국가여유국(국가관광국)은 “華夏城鄉遊(중국도농관광)”정책을 내놓고 “농가음식을 먹고, 농가에서 숙박을 하고, 농가에서 생활을 하고, 농가의 풍경을 보고, 농가의 즐거움을 향유한다(吃農家飯, 住農家院, 看農家景, 享農家樂)”는 구호를 통해 중국 향촌관광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이어서 국가여유국은 1999년을 “生態旅遊年(생태관광의 해)”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는 향촌생태환경을 충분히 이용 및 보호하고, 향촌농업생태관광을 전개해 중국 향촌관광업의 발전을 한층 촉진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했다.

또한 국가여유국은 2001년을 농업관광 발전의 중요한 해로 지정하고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을 조사해 《농업관광발전지도규범》을 제정해 처음으로 농업관광시범지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서 2002년에는 《전국농업관광시범지구검사표준(試行)》을 발표해 농업관광의 규범화, 전문화, 그리고 시장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郭煥成 & 呂明偉, 2008).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관광농업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전국농업관광시범지구를 평가해 203개 농업관광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이어 2005년에는 다시 제2차 평가를 통해 156개 농업관광시범지구를 선정했다.⁸⁾

후진타오 정권 초반인 2006년에는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촌관광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국가농업부와 국가여유국이 진일보한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전국적인 온라인 네트워크인 중국휴양농업망(중국향촌관광망)을 구축해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2010년에는 [중공중앙1호문건]을 통해 “휴양농업, 향촌관광, 산림관광 그리고 농촌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비농업부문의 취업공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향촌관광을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촌관광정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추진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은 베이징시와 쓰촨성의 청두(成都)시이다. 베이징시는 2006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最美的鄉村(가장 아름다운 향촌)”을 선정해 베이징시 교외 민속관광을 적극 추진했고, 청두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農家樂”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난징(南京)시는 2005년 이래 매년 “農業嘉年華”를 거행해 향촌관광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郭煥成 & 韓非, 2010) 그 외 수 많은 지역에서 각기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향촌관광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馬勇 等(2007)은 1980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향촌관광의 발전은 그동안 관광객의 소비관념의 변화, 농산업의 발전 상황, 관광시장의 공급 상황 및 국가정책의 추진 방향의 변화에 따라 향촌관광 발전의 의존도도 다르다고 정의하고 약 20년 간의 향촌관광의 발전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해 설명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특색 있는 자원이 주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향촌관광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로 향촌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양호한 자연생태 환경, 그리고 오늘날 농가락과 같이 촌민의 토속적인 음식이 도시주민을 향촌으로 끌어들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직 향촌관광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맹아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농산업 주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죽림, 차

7) 경제발전의 경험에 따르면, 1인당 GDP가 800달러에 이르면 국내관광에 대한 동기가 유발된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97년에 1인당 GNP는 6457위안(807.1달러, 1달러 8위안 기준)에 달한다.

8) 2004년과 2005년에 선정된 이러한 농업관광시범지구 359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업관광여행지구 112개(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과 기관여행지구 60개(16.7%), 농업생태관광여행지구 56개(15.6%), 민속문화관광지구 20개(5.6%), 휴양휴가촌(산장) 26개(7.2%), 고읍신촌 39개(10.9%), 농가락 18개(5.0%), 자연경관지구 28개(7.8%)였다. 2008년 전국 향촌관광객은 4억 명을 초과하고 관광수입은 600억 위안을 초과해 전국관광객 총수와 관광 총수익에서 각각 28%와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郭煥成 & 韓非, 2010).

밭, 과수원 등 특색 있는 농산업과 경관을 활용하는 한편, 현대농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농업관광원, 농업과기원이 새롭게 향촌관광의 유인요소가 등장하는 시기다.

세 번째 시기는 정부정책 주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관광산업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광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정부는 3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촌관광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강화해 나가 농촌에서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도시민들이 향촌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마지막 단계는 시장수요 주도의 시기다. 이 시기는 향촌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향촌관광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 휴양, 교육, 문화체험 등으로 세분화되고 관리도 전문화되어 향촌관광의 품질도 높아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준도 향상되는 시기이다.

郭煥成 & 呂明偉(2008)도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단계를 제1단계 초기발흥단계(1980-1990년), 제2단계 초기발전단계(1990-2000년), 제3단계 규범경영단계(2000년 이후)로 나눠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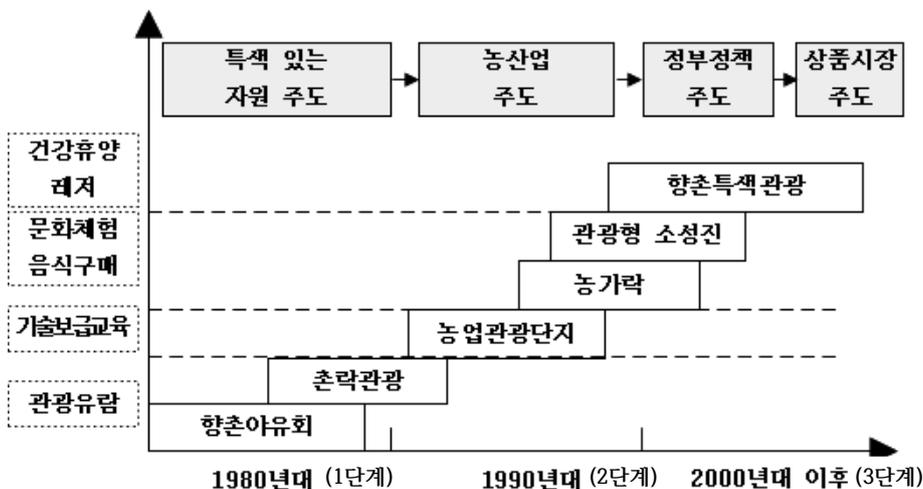
3.2. 지역적 특성

중국의 향촌관광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대도시 주변의 현대농업관광단지 위주로 발전했으며,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는 농가락 중심으로,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구이저우(貴州)성은 촌락 중심으로 발전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와 역사 자연 풍광이 뛰어난 윈난(雲南)성은 특색 있는 소성진(小城鎮) 중심으로 향촌관광이 발전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향촌관광이 발전한 베이징시와 중부 내륙의 독특한 역사와 자연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청두시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에서 향촌관광의 발전 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2.1. 베이징시의 향촌관광

향촌관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수도 베이징이다. 2015말 기준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171만 명이다. 임시거주인구까지 더하면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3,503위안으로 상하이의 14,153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베이징에서 16개 행정구(行政區)가 있다. 그 가운데 시내 중심인 동청(東城)과 서청(西城) 등 2개 구를 제외하면 하이디엔(海澱), 차오양(朝陽), 핑타이(豐臺), 스징산(石景山) 등 4개 구는 도심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나머지 통저우(通州), 순이(順義), 따싱(大興), 창핑(昌平), 핑구(平谷), 미윈(密雲), 화이러우(懷柔), 옌칭(延慶), 먼터우거우

<그림 2> 중국 향촌관광의 시기별 발전 과정
주. 馬勇 等(2007)의 연구 p.337의 그림1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재작성함.



(門頭溝), 팡산(房山) 등 10개 구는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베이징시의 향촌관광 규모는 작지 않다. 2015년 베이징시의 농림목축수산업의 총생산액은 368.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0.4km², 식량생산량은 6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농업관광단지는 1,328개로 전년 대비 27개가 증가했고, 관광단지의 총 수입은 26.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시설농업의 수입은 55.5억 위안을 실현해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민속관광을 운영하는 농가는 8,914호에 달해 전년 대비 78호가 증가했고 총 수익은 12.9억 위안으로 14.2% 증가했다.⁹⁾

이처럼 베이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관광 여건이 양호해 가장 일찍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이 발전했고 그 규모 또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수도로서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베이징은 근교농업이 발달하고 도심을 둘러싼 넓은 교외지역에는 많은 민속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신중국 설립 이후 원시적 산업자본이 축적되지 않았던 시절 농촌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체제에서 이제 개혁개방을 통해 도시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도시가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바뀌어 세수가 많은 베이징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해서 휴양농업과 향촌관광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베이징시의 향촌관광은 90년 초에 시작했다. 1994년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정부는 도시농업을 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설정하고 관광, 관상, 무공해 등의 특징

을 지닌 도시농업을 차오양구 경제발전의 6대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로 선정했다. 1996년, 베이징시는 관광농업을 전(全) 시 6대 농산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후 1998년,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관광농업발전규획”을 제정해 2001년에 이르러 베이징시 관광농업 사업은 1,589개에 달했다. 그 결과, 2001년 한해 향촌관광 방문객 수는 2,856만 명에 달했고 관광농업 총수입은 17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郭煥成 & 韓非, 2010)

郭煥成 等(2008)은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베이징의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에 대해 크게 휴양농업, 민속휴양관광, 레저휴양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발전과정과 세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휴양농업의 발전이다. 이는 베이징 근교에서 발전했다. 그 시작을 보면, 창평현(昌平縣)의 가장 큰 관광지인 명13릉관광구의 과일따기체험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2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베이징 근교의 농촌지역에서 휴양농업은 상당한 규모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휴양농업은 과일따기체험(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민속휴양관광의 발전이다. 민속휴양관광은 농촌사업구조가 변화되고 근교 관광업이 발전됨에 따라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베이징시는 민속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市) 산하의 농업위원회와 관광국에서 <베이징시 민속관광 종사 농가 평가기준>과 <베이징시 민속관광 종사 농가 임시 평가 방법>을 제정해 처음으로 시급 민속촌 35개를 심사했다.

세 번째는 레저휴양촌의 발전이다. 베이징시는 이미 1990년대에 들어 시내 중심의 호텔들이 포화를 이루자 근교에 건강, 휴양, 오락을 주요 테마로 하는 휴가촌 개발에 적극 나섰다. 1996

〈표 1〉 베이징시 향촌관광의 유형과 사례

주요 유형	세부 유형(대표 사례)
관광휴양농업형	①농원관광형(朝陽區의 朝來農藝園), ②과일따기형(順義區의 西晧瓜採摘園), ③어장낚시형(懷柔區의 紅鱒魚養殖, 垂釣場), ④축목관상수렵형(房山區의 蒲洼鄉 野生動物飼養場과 狩獵場), ⑤산림관광형(上方山森林公園, 雲蒙山森林公園, 香山植物園), ⑥생태과기관광형(昌平區의 小湯山現代農業科技園), ⑦종합관광형(昌平區의 下莊鄉開發山區 特色觀光프로젝트)
민속휴양관광형	①고촌락관람형(遙橋峪民俗旅遊村), ②농사체험형(昌平麻峪房民俗旅遊村), ③휴가휴양형(房山區十渡鎮九渡民俗旅遊村), ④전통교육형(房山區霞雲峪鄉의 堂山民俗旅遊村), ⑤과학보급교육형(大興區長子營鎮의 留民營民俗旅遊村), ⑥신규마을전시형(房山區의 韓村河民俗旅遊村)
휴양휴가촌형	①온천 위주의 건강휴양형 휴가촌(順義高麗營鎮于庄의 春暉村), ②생태농업 위주의 생태형 휴가촌(朝陽區의 蟹島綠色生態度假村), ③체육시설 위주의 운동건강형 휴가촌(豐臺區의 大井體育公園休閒度假村), ④산림 위주의 휴양형 녹색휴가촌(順義區의 北京綠色度假村), ⑤관광부동산 위주의 별장형 휴가촌(密雲의 瑞海姆田園度假村), ⑥민속풍습과 고촌락 위주의 향토문화형 휴가촌(頭溝區齋堂鎮의 爨底下民俗文化度假村), ⑦자연풍경관광지 위치의 산지휴양휴가촌(懷柔의 神堂峪度假村), ⑧기타: 회의형 휴가촌(怡生園國際會議中心), 수렵형 휴가촌(北京天龍狩獵山莊), 과학보급문화형 휴가촌(地球村) 등

주. 郭煥成 등(2008) 연구 내용을 참고해 요약 정리함.

9) 10개 농촌지역 구에는 모두 38개의 향(鄉)과 144개의 진(鎮)이 있다.

10) 이상과 같이 베이징시의 일반적인 개황은 아래의 바이두백과(百度百科)를 참고로 하되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설명했다.

http://baike.baidu.com/link?url=C9ECV87wpsj0tzbFwSRDWB3hBrvQMq2pYyRhw80vSOIXz8Y28m4Y19jKHx4mTJqfAiV3nmWpjaVnL2r0z-qkNBUwRRlaS8zi9Y2fwcEzYBhw5LaoRX1oSDNnGUXJauQmEocoT27ERxNL5M7DHa#7_2(검색일: 2016. 7. 25)

년, 베이징시는 평구진하이후(平谷金海湖), 미윈바이허(密雲白河), 화이러우홍뤄산(懷柔紅螺山), 핑타이화랑(豐臺花鄉), 하이디엔다오상후(海澱稻香湖), 창핑(昌平) 등 6곳에 시급 관광휴양구를 건설했는데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해 2000대 중반에 이미 15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베이징시의 향촌관광의 유형을 크게 농업관광휴가, 민속문화휴가, 휴가휴양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발전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에 구체적으로 어떤 향촌관광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리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3.2.2. 청두(成都)시의 향촌관광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省都)이며 중국 서남내륙지역의 역사와 문화, 과학과 기술, 상업과 무역, 금융, 교통과 통신의 중심 도시이다. 청두시는 쓰촨분지(四川盆地)의 서부에 위치하며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강과 하천이 많아 물산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 고래로 “天府之國”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청두시는 진장구(錦江區) 등 10개 구와 5개 현, 그리고 5개 현급시가 있으며 상주인구는 2015년 기준 1,572.8만 명이다. 청두시는 역사가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먼저 국가역사문화명예도시로 지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¹¹⁾ 남방 실크

로드의 시발점이기도 한 청두시에는 중국 최고의 수리시설인 두장옌(都江堰, 세계문화유산), 삼국지의 역사가 서린 무후사(武侯祠), 시성(詩聖) 두보를 기린 두보초당(杜甫草堂), 3000년의 역사를 지닌 금사(金沙)유적지,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팬더의 고향이기도 하다.¹²⁾

쓰촨성 청두시의 농업관광은 90년대 초에 시작됐고 그 시발점은 청두시 근교인 비현(郫縣) 여우아이(友愛)향의 농과촌(農科村)인 쉬자따위안(徐家大院)이다. 전국 농가락의 시발지로 여겨지는 이 촌은 꽃과 나무 식재와 관광을 시작으로 점차 농업관광, 유람, 휴양 등과 같은 사업을 개척해 나가 전국 최초로 농가락 관광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쉬자따위안을 시발점으로 도시 근교인 룡취안이구(龍泉驛區), 진장구(錦江區), 두장옌시(都江堰市) 등에서도 자기 지역 농업관광의 특성과 결합해 농가락 관광을 개발하는 등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郭煥成 & 韓非, 2010).

그 결과, 2008년 말까지 청두시에는 전국농업관광시범구 6곳, 특색관광진(鎮) 6곳, 관광특색촌 11곳, 향촌호텔 7곳, 농가락 7,000여 곳(그중 등록된 곳은 3,090곳)이 있으며 그 가운데 성급(星級) 농가락은 516곳, 농업관광휴양을 주제로 한 국가A급 관광풍경구 3곳에 달하였다. 2008년 농가락 방문객은 약 4,526만 명에 달했고 관광수익은 17억 위안을 초과했다. 직접 고용인원은 3만6천 명, 관련 종사인원은 5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¹³⁾ 이처럼 청두시에서의 향촌관광은 이미 도시민에게는

<그림 3> 베이징 근교 향촌관광마을과 체험객



11) 청두시는 먹을 것도 풍부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미식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12) 이상과 같이 청두시의 일반적인 개황은 아래의 바이두백과(百度百科)를 참고로 하되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설명했다.

http://baike.baidu.com/link?url=V0sz_lssB2dG_UIB03A6167wAA815CK5hSOHd5iCELTh0RkRZY9eOCUIzZo7RlhVazYLPDd4N_GBzri-4HR8P_w6SfhAUcUNun9aSAAd4GoHyePkR_FubTLFRrw7yn1cenx2-l2w6QKsRBKpezO0AWPd1iM5d-8AwVDJSnq87IEdGH8IBBGpFCnJtCogpczGh(검색일: 2016. 8. 14)

13) 百度文库: 成都市乡村旅游发展现状及对策建议

<http://wenku.baidu.com/view/430068360b4c2e3f57276325.html?re=view>(검색일: 2016. 8. 14)

중요한 휴양방식이 되었으며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최근 청두시여유국이 발표한 <2015년 청두시 관광경제 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청두시 전체 관광객은 1억 9,100만 명으로 전년대비 2.75%가 증가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15년도 청두시 향촌관광객이 9,519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9.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점이다. 또한, 같은 해 향촌관광의 총수입은 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3%가 증가해 그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결과는 청두시가 지역민과 함께 자기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농업과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향촌관광 상품을 잘 개발하고 홍보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적극 뒷받침하고 추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청두(成都)시 향촌관광협회 누리집 메인 화면



4. 중국 향촌관광 발전의 의의

4.1. 정치경제적 의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인 일본을 제치고 G2로 등극했다. 경제적 성과에 힘입은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필적할 만한 위상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3농문제'로 대표되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는 1990년 말부터 중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이 등장하면서 3농문제를 국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천명한 이후 줄곧

10년 동안 3농문제 해결을 제1순위 정책 목표로 삼았고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서도 이러한 정책 노선은 변함이 없다.

3농문제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도농 간 소득격차이다. 다음 <그림 5>과 같이 개혁·개방 이후 도시 위주의 발전정책으로 2002년에 이미 도농 간 소득 격차가 3:1(2002에 3.11:1)을 넘어가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사회불안의 가장 큰 잠재 요인으로 등장했다.¹⁵⁾ 따라서 후진타오 정권 들어 학계와 민간에서 즐기자게 제기한 3농문제 해결을 정책의 제1순위로 받아들여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라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하나로 도농통합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을 개별적인 정책단위로 나뉘어 별도의 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도시가 농촌을 먹여 살리고, 공업이 농업을 먹여 살리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도농통합 발전 전략에는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향촌관광은 도시가 농촌을 먹여 살리면서도 도시인들에게 휴양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 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후진타오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구한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He & Qi, 2012).

후진타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공산당은 2004년 9월 제16차 4중전회(제16차 당대회 중 4번째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와 조화사회(和諧社會) 구축을 위한 중요 임무를 제기했다. 이후 2006년 10월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와 조화사회 구축을 위한 중대한 임무 중의 하나로 사회주의신농촌건설과 도농조화발전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농조화발전은 하나의 방대한 국가적 사업으로 경제, 사회, 생태, 문화 등을 포괄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촌관광의 발전은 도농조화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많은 정부 지도자들이 향촌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일례로 국가여유국은 2007년 관광의 테마를 “중국 도농조화 여행(中國都農和諧遊)”으로 정하고 “매력있는 향촌, 활력있는 도시, 조화로운 중국(魅力鄉村, 活力城市, 和諧中國)”이라는 구호를 제기했다(馬勇等, 2007).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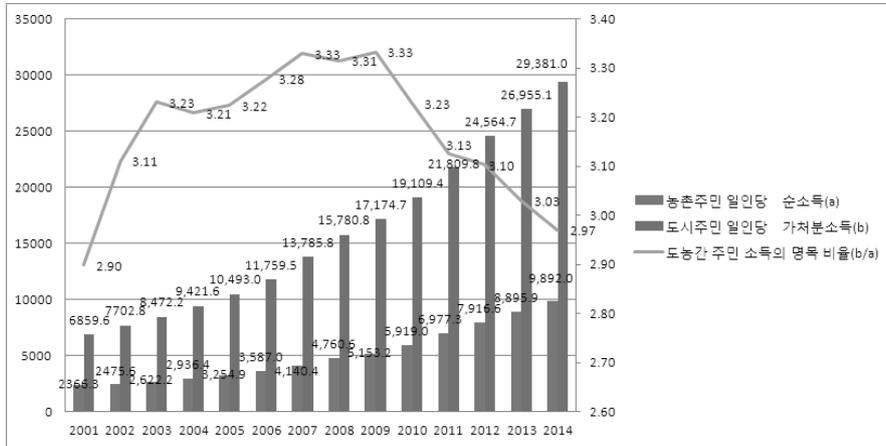
이처럼 향촌관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이후 지속되어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등장했다. 즉, 2010년 중공중앙이 발표한 [중공중앙1호문건]은 《도농 통합 발전 확

14) 成都日報 2016년 3월 5일자 보도내용 (http://www.sc.xinhuanet.com/content/2016-03/05/c_1118242905.htm)(검색일: 2016. 8. 14)

15) 많은 사회학자들은 한 사회의 도농 간 소득 격차가 3:1 이상이면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전 단계라고 했다. 중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는 2002년에 3.11:1로 이미 3:1을 넘어섰고 이후 2007년에는 3.3:1에 도달했다. 이는 명목상 도농 간 소득격차일 뿐 도농 간 교육, 문화, 복지 등 소득에 잡히지 않는 사회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격차는 6:1~7:1로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미 폭동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박경철, 2014) 2014년에 들어와서는 다행히 3:1 이하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도시와 농촌주민 간 소득격차 추이(2001-2014)

자료 출처: 〈중국국가통계연감〉 각 년도.
주: 단위는 위안, 비율



대해 농업농촌 발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에서 농민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휴양농업, 향촌관광, 산림관광과 농촌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켜 비농업부분의 취업 공간을 개척할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¹⁷⁾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서도 농업생산만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농업 외적인 부분인 향촌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향촌관광을 통해 비농업부분의 취업공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감(反鄉)으로써 농촌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향촌관광을 이러한 인력 수용에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郭煥成 & 韓非(2010)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서 향촌관광은 향촌산업구조의 개편, 도농 간 소득격차의 축소, 농촌에서의 취업의 촉진, 그리고 유관 산업의 발전과 도농문화교류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향촌관광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은 최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정책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신형도시화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개발해 농

촌의 생활환경과 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3농문제를 해결(中國城鎮化工作會議 2013)함으로써 중국이 비로소 현대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진핑-리커창체제의 핵심적 정치적 이념이자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으로 현재 많은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개발의 목적 중의 하나가 특색있는 농촌을 향촌관광지로 적극 개발해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 농민들의 취업과 소득 창출을 위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제도적 틀을 마련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관광투자와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서 신형도시화와 향촌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관광, 휴양, 레저, 양생, 쇼핑 등의 기능을 통합해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관광도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의 건설 추진을 제시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국에 6,000개 이상의 향촌관광모범촌을 건설하고, 10개 이상의 휴양농업과 향촌관광특색촌과 300만 개의 농기락을 형성해 향촌관광 방문객 20억 명을 달성해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농민이 5,000만 명이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향촌관광으로 매년 200만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6,000개 탈빈곤관광중점촌에서 향촌관광을 추진해 각 중점촌이 한 해 향촌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만 위안에 달하도록 목표를 세웠다.¹⁸⁾ 이와 같이 중국정부는 신형

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여유국 邱琪偉 국장은 향촌관광의 발전은 도농 통합 발전의 중요한 시책이며, 이는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저장성 여유국 紀根立 국장은 2006년 중국향촌휴양관광 최고지도자 포럼에서 향촌관광의 발전은 조화롭지 못한 사회 요인을 제거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馬勇 等, 2007).

17) (中发[2010]1号) 就“努力促进农民创业就业”明确提出,“积极发展休闲农业、乡村旅游、森林旅游和农村服务业, 拓展非农就业空间.”

18) 戴斌, 2015, “更有保障的旅游权利, 更加彰显的国家意志”: <http://travel.sohu.com/20150812/n418689943.shtml>(검색일: 2016. 8. 14):

도시화와 향촌관광을 적극 연계해 중국의 최대 현안인 3농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2. 사회문화적 의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1990년대 들어와서는 원배오(溫飽)문제, 즉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력이 촉진되고 산업이 발전되어 노동자계층과 중산계층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중산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의 구조와 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수익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다면 이후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를 즐기는 사회, 즉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여행과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아울러 건강도 돌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공휴일을 확대 지정해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토요일 휴무제 실시와 이후 2008년에 단행된 단오절, 청명절, 중추절 등 중국의 3대 전통명절의 공휴일 지정이다.¹⁹⁾ 특히, 3대 명절의 부활은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과 배치되어 배격했던 중국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복원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가져다주었다.(Sofield & Li, 1998)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雙康時代”의 도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소득수준이 향상된 중국인들이 삶의 여유와 건강을 추구하는 小康+健康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샤오캉과 건강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하자면 정신적 건강, 사상적 건강,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한 “雙康時代”의 도래는 결과론적으로 향촌관광을 진작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이다. 중국인들이 삶의 여유와 건강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 향촌을 찾고 그곳에서 향촌마을과 향촌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토속음식을 즐긴다는 것은 “雙康時代”에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론의 여지없이 중국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광활한

대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56개 민족이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독특한 향촌문화는 향촌관광을 진작하기에 충분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張麗 & 張勇(2007)은 향촌문화를 인류와 향촌이 자연적인 상호작용 과정 중에 창조된 모든 사물과 현상의 총화라고 정의하고 향촌문화의 구성요소로는 오랜 역사 발전 과정 중에 누적되고 퇴적된 것들로 대부분은 향촌관광 개발 중에 향촌관광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전원경관, 농경문화, 건축문화, 음식문화, 수공예문화, 가정문화, 예술문화는 깊은 향토색을 지니고 있어 향촌관광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인물(誘引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중점적 개발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향촌관광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함께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핵심사업으로 향촌관광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에는 신형도시화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향촌관광은 대도시 주변 특색있는 농업지구, 전통과 문화가 유서깊은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향촌문화가 상품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 과정을 크게 시간적 특성과 지역성 특성으로 나눠 설명하고 그 의의를 다시 정치경제적 의의와 사회문화적 의의로 나눠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향촌관광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그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단계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시작해 1990년까지로 이때 향촌관광은 발전을 위한 싹을 틔웠다. 2단계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로 초기발전을 이룩한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00년 이후이며 이 시기 동안 향촌관광은 빠르게 발전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전국향촌관광발전강요》(2009~2015)와 같은 규범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장수요가 다변화되어 향촌관광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 향촌관광은 대도시 주변으로 발전했으며 지역적으로 발전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향촌관광이 가

19) 이러한 전통과 풍습은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배격되었지만 중산층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중국 정부도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 먼저 발전했으며 규모 또한 가장 큰 베이징시의 경우에는 베이징 주변의 다양한 민속마을 위주로 향촌관광이 추진되었고 이후 시장수요에 맞춰 휴양농업단지, 휴양데저단지 등을 개발해 적극 대응했다. 쓰촨성 청두시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농가력이 가장 일찍 발전한 지역답게 농가민박과 같은 개별 가구 단위 향촌관광이 발전했다. 하지만 청두시도 베이징시와 같이 다양한 향촌관광지가 개발되면서 발전 형태는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이징시와 청두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향촌관광은 중국의 최대 현안과제인 3농문제의 해결과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향촌관광은 2006년부터 후진타오 정권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회주의신농촌건설과 맞물리면서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0년에 발표된 [중공중앙1호문건]에도 휴양농업과 향촌관광을 적극 활용해 3농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시진핑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신형도시화정책도 향촌관광과 적극 연계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향촌관광이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중국의 향촌관광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1995년부터 주5일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2008년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명절인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생활의 여유와 여가활동이 증대되면서 향촌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이 “雙康”(小康+健康)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향촌관광의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양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향촌관광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며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수렴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향촌관광에 대한 이해가 달라 혼선내지 남용되고 있다. 법률적 미비로 인한 향촌관광 개념의 모호성은 곧 이익관계의 모호로 이어져 향촌관광이 발전해도 농민들에게는 실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향촌관광 개발 사업들이 향촌민들과는 무관하게 남용되고 있다. 그 결과 향촌관광이 향촌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향촌민들이 개발로 인해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현상들이 사례도 많다.

둘째는 향촌관광이 지나치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촌관광은 2006년에 시작된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의 주요한 정책 수단이었으며, 2013년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 추진된 신형도시화에서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촌관광은 중국의 최대 현안과제인 3농문제와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여겨져 중국의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도시화와 아울러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방식이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의 향촌관광이 중국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촌관광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향촌관광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익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적 상황이 변화더라도 향촌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에서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중국의 향촌관광의 발전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양. (2011). 중국 농촌관광의 발전과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박경철. (2012). 중국 농촌합작체계의 형성과 전개 (1919-1958): 서구 공산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사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8(4), 1011-1048.
3. 박경철, & 구택기. (2012).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변화 모식: 신제도주의경제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9(1), 179-194.(中文)
4. 박경철. (2013). 포스트사회주의 이후 중국 합작사(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중국 산둥성 평라이시 포도주생산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2(2), 237-280.
5. 박경철. (2014). 후진타오 시기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16(1), 371-410.
6. 박경철. (2015). 중국 농촌마을 재편의 의의와 한계 - ‘農民上樓’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2(2), 191-203.
7. 왕광. (2010). 중국 농촌관광에 관한 고찰.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He, L., & Qi, Y. B.. (2012). Research on rural Tourism and development of new rural construction based on

- coupling theory. *Contemporary Research in Business*, 3(10), 65-74.
9. Reichel, A., Lowengart, O., & Milman, A.. (2000). Rural tourism in Israel: service quality and orientation. *Tourism Management*, 21, 451-459.
 10. Sofield, H. B., & Li, S., (1998). Tourism development and cultural policies in China. *Tourism Research*, 25, 362-392.
 11. Su, B. (2011). Rural Tourism in China. *Tourism Management*, 32, 1438-1441.
 12. Wang, L. E., Cheng, S. K., Zhong, L. S., Mu, S. L., DHRUBA, B. G., & REN, G. Z. (2013). Rural tourism development in China: principles, Models and the future. *Mountain Science*, 10, 116-129.
 13. 戴斌, 周曉歌 & 梁壯平. (2006). 中國與國外鄉村觀光發展模式比較研究. *江西科技師範學院學報*, 1, 16-23.
 14. 杜宗斌 & 蘇勤. (2011). 鄉村旅遊的參與, 居民旅遊影響感知與社區歸屬感的關係研究: 以浙江安吉鄉村旅遊地為例. *旅遊學刊*, 26(11), 65-70.
 15. 郭煥成 & 韓非. (2010). 中國鄉村旅遊發展綜述. *地理科學進展*, 29(12), 1598-1605.
 16. 郭煥成 & 呂明偉. (2008). 我國休閒農業發展現狀與對策. *經濟地理*, 28(4), 640-645.
 17. 郭煥成, 孫藝惠, 任國柱 & 呂明偉. (2008). 北京休閒農業與鄉村旅遊發展研究. *地球信息科學*, 10(4), 454-461.
 18. 何景明 & 李立華. (2002). 關於“鄉村旅遊”概念的探討.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8(5), 125-128.
 19. 黃震方, 陸林, 蘇勤, 章錦河, 孫九霞, 萬緒才, & 靳城. (2015). 新型城鎮化背景下的鄉村旅遊發展: 理論反思與困境突破. *地理研究*, 34(8), 1409-1421.
 20. 李鶯莉 & 王燦. (2015). 新型城鎮化下我國鄉村旅遊的生態化轉型探討. *農業經濟問題*, 6, 29-34.
 21. 龍茂興 & 張河清. (2006). 鄉村旅遊發展中存在問題的解析. *旅遊學刊*, 21(9), 22-27.
 22. 盧小麗, 成宇行, & 王立偉. (2014). 國內外鄉村旅遊研究熱點-近20年文獻回顧. *資源科學*, 36(1), 200-205.
 23. 馬勇, 趙蕾, 宋鴻, 郭清霞, & 劉明儉. (2007). 中國鄉村旅遊發展路徑及模式: 以成都鄉村旅遊發展模式為例. *經濟地理*, 27(2), 336-339.
 24. 王昌海. (2015). 效率, 公平, 信任與滿足度: 鄉村旅遊合作社發展的路徑選擇. *中國農村經濟*, 4, 59-71.
 25. 王瑩 & 許曉曉. (2015). 社區視覺下鄉村旅遊發展的影響因子: 基於杭州的調研. *經濟地理*, 35(3), 203-208.
 26. 王云才, 郭煥成, & 徐輝林. (2006). *鄉村旅遊規劃原理與方法*. 北京: 科學出版社.
 27. 張艷 & 張勇. (2007). 鄉村文化與鄉村旅遊開發. *經濟地理*, 27(3), 309-3012.
 28. 張文, 安艷艷 & 李娜. (2006). 我國鄉村旅遊發展的社會與經濟效益, 問題及對策.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133, 17-24.
 29. 張艷 & 張勇. (2007). 鄉村文化與鄉村旅遊開發. *經濟地理*, 27(3), 509-512.
 30. 趙仕紅 & 常向陽. (2014). 休閒農業遊客滿意度實證分析: 基於江蘇省南京市的調查數據. *農業技術經濟*, 4, 110-119.
 31. 周建明, 蔡曉霞, & 宋濤. (2011). 試論我國鄉村觀光標準化發展歷程及體系架構. *旅遊學刊*, 26(2), 58-63.
 32. 朱華. (2006). 鄉村旅遊利益主體研究: 以成都市三聖鄉紅砂村觀光旅行為例. *旅遊學刊*, 21(5), 22-27.

〈인터넷자료〉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http://www.moa.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http://www.cnta.gov.cn/>
 中國鄉村旅遊協會: <http://www.crttrip.com/>
 北京觀光休閒農業行業協會: <http://ly.bjnw.gov.cn/>
 成都市鄉村旅遊協會: <http://cdxclj.net/>
 成都休閒農業與鄉村旅遊產業協會: <http://www.cdxxny.com/>
 成都鄉村旅遊綜合管理平台: <http://www.xclygl.com/web/>

Received 000 2016; Revised 000 2016; Accepted 000 2016



Dr. Kyong Cheol Park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and Agriculture Research Center in Chungnam Institute,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 is on rural society, rural development, and rural China.

Address: (314-140) Chungnam Institute, 73-26, Yeonsuwon-gil, Gongju-si, Chungchengnam-do, Korea email) kcpark@cni.re.kr